

#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146명 선출

## “제2기 대의원은 양돈자조금을 정착시키는 견인차” 10월 17~18일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전국적 실시



◀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지난 17일 전국 92개 선출구에서 일제히 실시되어 성공적으로 제2기 대의원이 선출됐다. (왼쪽부터 양돈협 정종국 부회장, 농협중앙회 오세관 축산지원부장, 축산신문사 윤봉중 회장,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이천선거관리위원, 김동환 양돈협회장,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이사장, 최영수 양돈협회 이천지부장)

### 91개 선출구 대의원 146명 선출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가 전체 150명중 146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2기 대의원선거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국 92개 선출구에서 일제히 치러졌으며, 154명의 대의원 후보 가운데 91개 선출구, 146명이 선출됐다. 다만 제주도의 제주선출구만 대의원 선거를 다시 실시기로 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에서 대의원 선거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9,661명 양돈농가중 4,8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0.5%의 투표

율을 보였으며, 돼지 사육두수로는 11,072,051두 중 70.3%인 7,787,850두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효투표수(농가의 과반수 또는 돼지 사육두수의 2/3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양돈농가의 50.5%인 4,8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농가 참여율이 제1기(38.5%) 때보다 12%나 증가하였으며, 이번 당선자의 사육두수는 425,931두로 전국 사육두수(11,072,051두)의 38.4%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양돈협회 화성지부에서 투표를 마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지부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인들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는



▲ 지난 10월 17일 이천선출구인 이천축협에서 양돈농가들이 투표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각 투표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대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양돈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김건태 관리위원장, 오세관 농협 축산지원부장, 박영인 자조금 연구원 이사 등은 이천축협 선거구를 방문,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양돈농가들을 독려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FTA 시대 아래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돼지열병 청정화 및 분뇨처리,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 등 3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제2기 대의원들은 양돈자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제2기 대의원 역할 기대

김 위원장은 “제2기 대의원이 앞으로 양돈자조금을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차기 대의원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양돈농가의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양돈자조금이 모든 양돈농가의 정신 운동임을 강조, “그 동안의 시행착오는 바로잡고 자조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차기 대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당선자 명단

### <경기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남양주·가평·서울 선출구	신성균	고양선출구	최호성	김포·광명선출구	이장학
화성·오산·시흥·안산·수원·의왕선출구	김동환, 김선근, 이정배	양주·동두천·의정부선출구	조윤상, 최동희, 원경봉	양평선출구	박세창
이천선출구	정종국, 최영수, 진길부, 유병택	안성선출구	안규광, 이정찬, 이상훈	여주선출구	윤상익, 김건호
연천선출구	홍성만, 이장원	용인·광주선출구	박준원, 심우범, 김영원	파주선출구	김문진, 이운상
평택선출구	전용환, 진성진	포천선출구	박호근, 왕영일, 가세현	인천선출구	박육주

## 소 식

### <강원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강릉선출구	김응환	삼척·평창·정선·태백·영월·동해선출구	이세진	양양·고성·속초선출구	김광우
원주선출구	김명호	철원·화천·양구·인제선출구	최종문, 홍재진	홍천·횡성·춘천선출구	최사영

### <충청북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괴산·증평선출구	전병철	보은·영동축협	방희진	음성선출구	조철희
충주·제천·단양선출구	이진석	진천선출구	전홍우, 이규성	청원·청주선출구	장성순

### <충청남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공주·금산·대진·계룡출장소선출구	장장길, 고정현	논산선출구	이규철, 이용민	당진선출구	남창현, 이호경, 이재만
보령·서천선출구	이정학, 강화규, 김한규	부여선출구	신현길	아산선출구	김세영, 김정태
연기선출구	진재현	예산선출구	상실제, 차창희, 김동협	천안선출구	이병모, 최홍환
청양선출구	이창영	서산·태안선출구	이순로	홍성선출구	김건태, 정일희, 한홍재, 황규진, 박승구, 이재형, 함승구

### <전라북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고창·부안선출구	이석주	군산선출구	이경래	김제선출구	김현욱, 류기열, 박현식
남원·순창선출구	이운택, 김규석	완주·전주선출구	강경철	익산선출구	최장현, 이현택, 김성목, 주한노, 소병철
임실선출구	박점식	정읍선출구	오정섭, 강희종, 김두술	장수·진안·무주선출구	최학부

### <전라남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고흥·보성·장흥·강진선출구	이진규	순천·곡성·구례·광양선출구	유상모	나주선출구	최희태, 나권만, 김창섭, 오수택
장성·담양·광주선출구	오재근	무안·신안·목포선출구	최채우, 박문재	여수선출구	박대현
영광선출구	한용석	영암선출구	강대천	해남·완도·진도선출구	이정율
함평선출구	노갑진	화순선출구	윤홍만		

### <경상북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경산선출구	서영수	경주선출구	최창규, 김정제	고령선출구	배영순
구미·칠곡선출구	조진래	군위선출구	이경진	김천선출구	정대주
예천·문경선출구	윤희수	상주선출구	고재훈	성주선출구	최재철
안동선출구	김건년	영주선출구	김익현	봉화·울진·청송·영양선출구	양진선
영천선출구	김성곤, 서정구	청도선출구	이병규	의성선출구	손상훈
포항·영덕선출구	예효준	대구선출구	이태건		

### <경상남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거창선출구	엄홍주	고성·거제·통영선출구	최상림	김해선출구	박재민, 배수환, 이병민
마산·창원·진해선출구	박창식	밀양선출구	설병천	사천·하동·남해선출구	정충기
진주선출구	김광위	산청·의령선출구	김광규	양산·부산선출구	서춘계, 정정일
창녕선출구	여영성	함안선출구	함연수	함양선출구	노정만
합천선출구	김규한, 장달근	울산선출구	이상국		

### <제주도>

선출구	당선자	선출구	당선자
서귀포선출구	손용조, 박영종	제주선출구	선거 재실시

## •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간담회 지역별 개최 •



전라권 대의원 간담회(10월 22일)



경북 대의원 간담회(10월 23일)



경기·강원권 대의원 간담회(10월 24일)

10월 17일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어 146명의 대의원이 선출이 됨에 따라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공동으로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간담회를 각 지역별로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전라·제주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23일에는 경북, 24일에는 경기·강원권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양돈자조금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차기 대의원들과 자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의원들은 향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자조금 거출비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이다.

### ▣ 양돈자조금 거출비용 인상 필요성 공감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2일 대전 샤프 그레이스 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대의원 간담회에서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은 "시기상 어렵지만 홍보란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자조금 거출비용 600원 인상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산업을 지키는데 양돈자조금을 활용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규철 논산지부장 등 대의원들은 자조금 거출비용 인상에 양돈농가들이 적극 동참해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 양돈농가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

한편 정일희 양돈협회 이사는 현재 등급판정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산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한 장치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재형 흥성지부 총무는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컨설팅 표준을 마련하는데 자조금이 쓰여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수입육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생산이력제와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을 통해 수입육과 차별화를 위한 제도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태 관리위원장은 "양돈농가가 거출해준 자조금이 1원당 20~25원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양돈 자조금 사업은 양돈농가의 필요와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대원칙인 만큼 양돈농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양돈**